서울시, '최고의 마이스 도시' 선정

비즈니스 관광 분야 최고권위 '글로벌 트래블러' 선정…4년 연속 수상

"MICE산업 · 의료관광 · 스마트 관광 통해 세계 최고 관광도시 도약"

서울시가 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이벤트) 분야 세계 최고 도시로 또한번 선정됐다.

시는 비즈니스 관광 분야 최고권위 전문매체인 '글로벌 트래블러(Global Traveler)'가 주관한 시상식에서 2015년부터 4년 연속 '최고의 마이스 도시'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두바이(2위)와 싱가포르(3위), 런던(4위), 홍콩(5위)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를 비롯한 수상도시는 여행객, 관련 업계종사자 등 주요 독자 10만5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1~8월)를 통해 선정됐다.

글로벌 트래블러는 전 세계 비즈니스 여행객과 관련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항공, 호텔, 도시, 라이프스타일 등 정보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여행 전문지다. 2004년 창간돼 매달 10만5000부 발간되고 있다. 주요 구독층은 고소득자와 평균 해외여행 빈도수가 높은 비즈니스 관광객이다.

서울시는 "IT환경과 대중교통, 숙박시설 등 제반 인프라가 완비돼 있을 뿐 아니라 전통과 첨단 트렌드가 공존하는 세련된 문화, 친절한 서울만의 매력이 연속수상으로 연결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서울은 각종 관광분야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시는 지난달 한·중·러 3개국 언론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메디컬 아시아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제11회 대한민국 글로벌 의료서비스 대상' 의료관광 인프라 부문에서 광역자치단체 대상을 수상했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웰니스 등 다양한 서울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해외설명회·팸투어를 연 결과라고 시는 설명했다.

'2018 한국PR 대상' 국제 PR부문에서는 서울시 관광홍보대사 방탄소년단이 '2018 올해의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서울 관련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관광홈페이지 '비짓 서울(Visit Seoul)'이 '2018 한국관광의 별' 관광정보 분야에 선정됐다.

모바일앱 '아이투어서울(i Tour Seoul)'은 '스마트앱어워드' 통합대상과 'IoT이노베이션어워드' 대상으로 2관왕을 차지했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지금까지 서울관광이 외래관광객 유치 중심의 양적성장을 해왔다면 이제는 MICE산업, 의료관광, 스마트관광 등 질적성장을 통해 세계 최고의 관광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서울시가 국제사회에서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면서 위상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인천내항 사일로 슈퍼그래픽 현장 시찰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17일 인천내항 7부두 한국티비티 사일로 일대에서 열린 '인천내항 사일로 슈퍼그래픽 기네스북 등재 현판식'에서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17일 정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조직개편 반대 집회를 진행하는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

"소통 · 기준 · 원칙 · 내용도 없는 막가파식"

서울교육청 일반직공무원들, 조직개편 반발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조직개편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점희 서울시교육청일반직노동조합 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연 집회에서 "직원들 간 내부 분열과 노조와의 불통으로 일관하는 막가파식 조직개편은 조직개편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현장 지원 강화와 정책기획 중심의 조직개편을 목표로 11개 담당을 폐지하고 4개 담당을 신설해 2019년 3월1일 단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과'와 '학생생활교육과'가 합쳐진 '민주시민생활교육과'를 신설한다. '교육공간기획추진단'은 폐지되고, 관련 업무는 '학교지원과'와 '교육시설안전과'로 이관된다.

'교육정보화과'도 폐지돼 기획업무의 경우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행정정보화 운영 업무는 '교육연구정보원'으로 이관해 운영된다. 또 미래교육기획, 사학감사 및 사학재정, 성평등교육 담당을 신설한다.

하지만 이같은 조직개편안 일부 내용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 노조는 시대흐름과 지역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4차 산업 시대에 교육정보화과를 없애는 조직개편, 10만 명이라는 거대집단 조직의 노사협력담당관 공중분해 의도 등에 대해 시의원들도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면서 "소통도 없고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내용도 없는 밀실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위원장 출신인 전남교육감이 내놓은 정책을 서울시교육청에 적용하려 사활을 걸고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전교생 200~300명인 산골학교와 섬이 많은 소규모 학교에 맞는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전교생 1000명이 넘는 최첨단 도시 서울시교육청에 적용하겠다는 정책을 승인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교육정보화과 등 11개 담당 폐지 · 4개 신설

"4차 산업 시대에 교육정보화과를 없애나"

"전남교육감 정책 서울교육청에 적용 일관"

이 위원장은 조직개편이 깜깜이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본청 부서 몇 개를 통합하면서 적어도 수십 명의 직원들이 본청에서 나가는 건데 사전에 직원들한테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면서 "하지만 조직개편 내용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는 지난달 28일 첫 집회 이후 다섯 번째로 진행된 것이다. 이날에는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뉴시스

서울 시민청서 황금돼지해 맞이 축제 열린다

21~23일 공연 · 전시 · 체험

서울시는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황금돼지의 해 '2019년 기해년'을 맞아 이번주 금요일과 주말 내내 시민 행복과 행운을 기원하는 연말 축제를 시민청에서 연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21~23일 시민청 일대(지하1층)에서 '모두의 시민청-잘돼지 2019'를 개최한다. 시민청 방문 시민 누구나 전시·체험·공연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시민청 시민플라자 한편에선 다양한 낚시 장비로 '복돼지'를 낚는 '돼지 낚장!' 낚시터가 열린다. 잡은 수에 따라 건강, 풍요, 인간관계 등 의미를 담은 기념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복돼지 중에는 '황금돼지' 저금통도 숨어 있어 낚으면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다.

평소 잘 사용하지 않지만 버리기는 아까웠던 물건을 '돼깨비 전당포'에 가져오면 다른 시민이 가져온 물건과 교환할 수 있다.

'잘 놀았음 돼지'를 주제로 시민 누구나 즐기며 잘 놀고 돌아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체험형 게임장이 운영된다. 벽면에 그려진 돼지 캐릭터 '호로로'와 그의 친구들을 찾아보는 숨은 돼지 찾기, 자음으로 낱말을 완성하는 초성게임, 상자 속 물건을 손 끝 감각으로 맞춰보는 촉감 게임 등이 준비됐다.

퓨전포장마차로 꾸며진 '잘돼집'에선 새해 소원을 적은 종이를 벽에 붙여 다른 시민과 나누고 즉석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 밖에 모두의 시민청이 진행되는 3일간 매일 오후 2시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공연이 이어진다.

22일 오후 2시 대학 동창생으로 구성된 '김명수 밴드' 연주로 공연이 시작된다. 이어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스무살'의 공연이 진행된다.

한국 대중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온 어쿠스틱 듀오 '볼빨간사춘기'가 무대에 오른다. 볼빨간사춘기는 '우주를줄게', '썸탈거야', '여행' 등 내는 곡마다 음원 순위 상위권을 차지한 바 있다.

21일부터 23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민청 지하1층 시민플라자에서는 관객 참여형 미디어아트 전시가 열린다.

공연·행사와 시민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려면 시민청 누리집(http://seoulcitizenshall.kr) 또는 시민청 안내데스크(02-739-7733)로 연락하면 된다. 시민청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